



# HEALING TO ACTION

**힐링 제너레이션(치유의 세대): 성별에  
따른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래를  
구축하는 생존자 주도 실험**

공동저자: 쉬린 아렘자데, 칼라 알트매이어, 에린 오캘러간

## 감사의 말씀:

저희는 저희 지역사회 참가 조사 파트너들의 소중한 시간, 믿음 또 작업에 대해 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텔폭칼리 커뮤니티 교육 프로젝트, 시카고 여성 핫라인, 하나 센터, 아프나가하, 켈지 센터

조사 및 평가 지원에 시간 및 전문성을 기여해주신 다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알리사 벨로니스, 제니 헤버트-번, 린다 포스트, 에린 하위즈, 에마 폭스, 에스페란자 에밀리아노, 파트리시아 파레다, 마리아 세라노, 마리아 루이자 텔레즈, 잭클린 오티즈, 야고다 라크월, 일리아나 에스피노사-라비, 미셸 로스버로우, 아리아나 스틸, 나즈카 세라노

힐링 제너레이션 (치유의 세대) 리더십 프로그램 협력 파트너로 기여해주신 다음의 분들과 조직들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헤레스 라티나스 엔 아씨온, 리갈 에이드 시카고, 아센드 저스티스, 메트로폴리탄 패밀리 서비스, 리갈 에이드 소사이어티, 켈지 센터, 시카고 여성 핫라인, TCEP, 어웨이크닝즈 갤러리, 마스히드 알-라비아, 실비아 에스카세가스, 제니 포터, 매튜 리, 올리비아 알파로, 레나 리, 마디아 린, 산기싸 라비찬트란, 안토니오 안코나

## 리포트 디자인 담당:

워먼 유나이트!

# 전체 개요

2017년, 힐링 투 액션(HTA)은 시카고 전역의 지역사회 조직 및 생존자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생존자들을 위해 설계 및 개발된 풀뿌리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인 힐링 제너레이션 (Healing Generations)을 만들고 시범 운영했습니다. 힐링 제너레이션에서 배운 개발, 구현 및 교훈을 공유함에 있어, 이 보고서는 생존자의 경험과 창의성에 뿌리를 둔 구체적인 풀뿌리 전략을 제공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서 성별에 따른 폭력을 감소시켜 줄 것입니다.

## 힐링 제너레이션 커뮤니티 주도 프로그램 설계

힐링 제너레이션을 설계하기 위해, 힐링 투 액션(HTA)은 참여형 혼합방법 조사 프로세스인 컨셉트맵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시카고 전역의 69명의 생존자들은 프로그램의 우선순위와 내용을 형성하는 핵심적 식견을 제공했습니다.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인 참가자간의 LGBTQ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정체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포함하여 성별에 따른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대간 접근 방식의 필요성.
- 사회적 오명이란 성별에 따른 폭력에만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에 생존자를 참여시키는 어려움.
- 생존자가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유 정의를 정치 교육에 통합하는 중요성.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힐링 투 액션(HTA)은 2018년 10월에 힐링 제너레이션을 설계, 시범 운영했으며, 2020년 6월에 두번째 코호트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각 코호트 프로그램에는 17명의 리더가 참여했으며, 수료자에는 라틴계, 아시아 태평양계, 흑인, 이민자, 원주민 생존자들과 장애를 가진 생존자를 포함했습니다.

교육과정에는 치유와 관계 형성 활동, 성차별 폭력의 근원과 근본원인에 대한 정치교육, 참여자 지역사회 내 성차별 폭력 퇴치 기술, 조직화 및 옹호 교육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 힐링 제너레이션

## 프로그램 결과

힐링 투 액션(HTA)은 프로그램 참가자의 프로그램에 따른 행동과 태도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매년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전 테스트와 사후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종료 시 테스트 후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두 코호트에 모두 참여한 응답자의 대다수는 방관자로서 개입에 더 관여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2018년 응답자 중 절반 이상과 2020년 응답자 중 3분의 2가 감정적 외로움이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 프로그램을 완료한 후, 2018년 응답자 중 63%가 고정관념을 덜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2020년 응답자 중 73%가 트랜스젠더에 대한 반대 편견/태도가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 2020년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리더십 프로그램의 3개월 기간 동안에 성별에 기반한 폭력에 대해 대화를 나눈 사람이 프로그램 전 일년을 통틀은 것과 비교해 더 많거나 혹은 동일했습니다.

# 장기간 결과:

2018년 수료와 동시에 힐링 제너레이션 생존 지도자들은 지역사회 내 성차별 폭력의 근본 원인인 종합적인 성보건 교육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풀뿌리 지역사회 캠페인 “성교육 효과 (섹스에드 워크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회관/시청, 교습, 청취회, 학교 이사들과의 회의, 기자 회견, 그리고 언론 인터뷰를 조직했습니다.

2020년 여름, 힐링 투 액션(HTA) 직원들은 2018년 수료생들과 함께 포커스 그룹을 진행해 18개월 전 프로그램 완료 이후 리더십 태도 및 행동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상한 주요 주제로는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 증가, 성 정체성과 성 기반 폭력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지도자들 자신의 지역 사회에서 성별에 따른 폭력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더 큰 위로감이 되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완료 직후인 2020년 가을, 힐링 제너레이션의 몇몇 2020년 수료생들도 “성교육 효과 (섹스에드 워크스)”에 합류하여 힐링 투 액션(HTA) 멤버십 베이스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 권장사항

1

존자 리더십은 새로운 지역 사회 조직 방식을 필요로 합니다

- 성차별 폭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사회 경험의 중심을 중요시하는 곳.

힐링 투 액션(HTA)은 생존자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모델을 조직하는 데 맞추기 보다는 그들의 살아 있는 현실을 중심으로 조직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

소외된 정체성에 걸쳐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생존자의 고립을 깨뜨리지만, 모든 리더가 성공하기 위해선 주의와 의도성이 필요합니다.

여러 정체성 집단에서 생존자들을 결집시킨 것은 그들의 경험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백인 우월주의, 외국인 혐오, 소득 불평등, 능력주의와 같은 억압의 교차 체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동시에, 서로 다른 경험에 걸쳐 신뢰와 취약성을 구축한 공간을 배양하려면 신중한 계획과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3

다원적 협업과 위험 감수성은 생존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정신 건강, 외상 회복, 법률, 지역사회조직 및 관련 분야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기존 대응의 격차를 해소하고 생존자들이 취약한 피해자에서 강력한 지도자로 재탄생하는 것이 성차별 폭력의 종식을 위한 싸움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4

생존자 주도의 조직에는 문제 기반 조직과 옹호에서 교차 분석과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생존자 삶의 복잡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응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며, 때로는 고립된 옹호 또는 다른 조직과 움직임이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는 데 사용하는 조직적 의제가 필요합니다.

5

“권력은 요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 프리드리크 더글라스

이러한 경험의 외상장애적 상처를 스스로 처리해 가는 동시에 일상적으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생존자 주도 조직의 지속적인 과제입니다.